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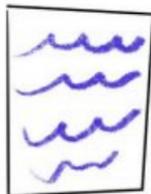
어느 날 너를 상상하며

김해라는 땅에
작은 씨앗을 심었어.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었지.
낮과 밤이 몇 번을 지나갔는지 몰라.
초록색 싹이 나고, 긴 줄기가 뻗어났어.
긴 이파리, 넓은 이파리.
색도 모양도 저마다 달랐지.
때로는 동그랗게 맺은 꽃망울이 기특해
아무도 모르게 울기도 했어.

어느 날, 문득
이 풍경을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했어.
연둣빛 종이를 접어 초대장을 만들었어.
설레는 마음으로 놀러올 너를 상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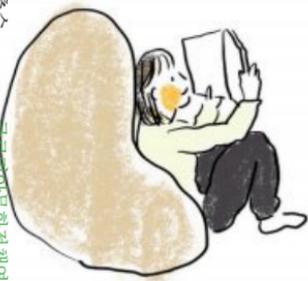


‘그림책’이라는 세상에 폭 빠져 건져 올린 보석 같은 아이들의 이야기.

동그랗게 둘러앉아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 가자.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들의 아름다운 연대기가 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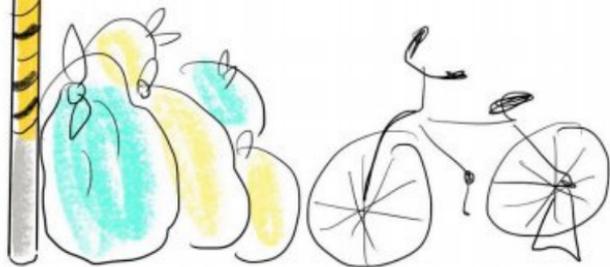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알고 싶다면 놀러 와.

‘한장포럼’, ‘콘퍼런스’, ‘테이블올림픽’

작지만 빛나는 김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화포천에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새 한 마리’ 날아온 게 뭘 대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별일’이라고 단단하게 말한다.

새가 먹고 살 만한 세상이어야,
사람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걸.

깨끗한 화포천에
드렁허리랑, 황새랑, 너랑, 나랑 어울려 살고 싶다.





‘김해에서 연극을 하고 싶다.’

‘극단 생활을 하고 싶다’

혼자 꾸던 꿈들이 모여 극단이 됐다.

‘우리 이야기’가 진짜 연극이 될 줄은 몰랐다고,
눈을 빛내며 말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연극을 해야지.





빵파니다

빵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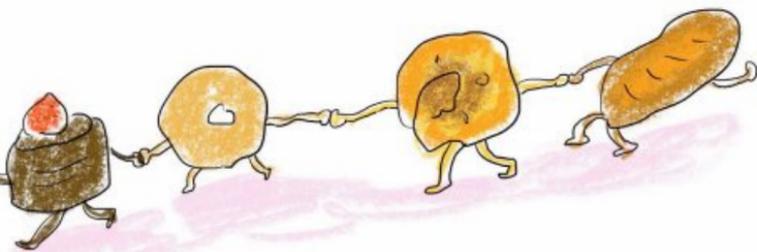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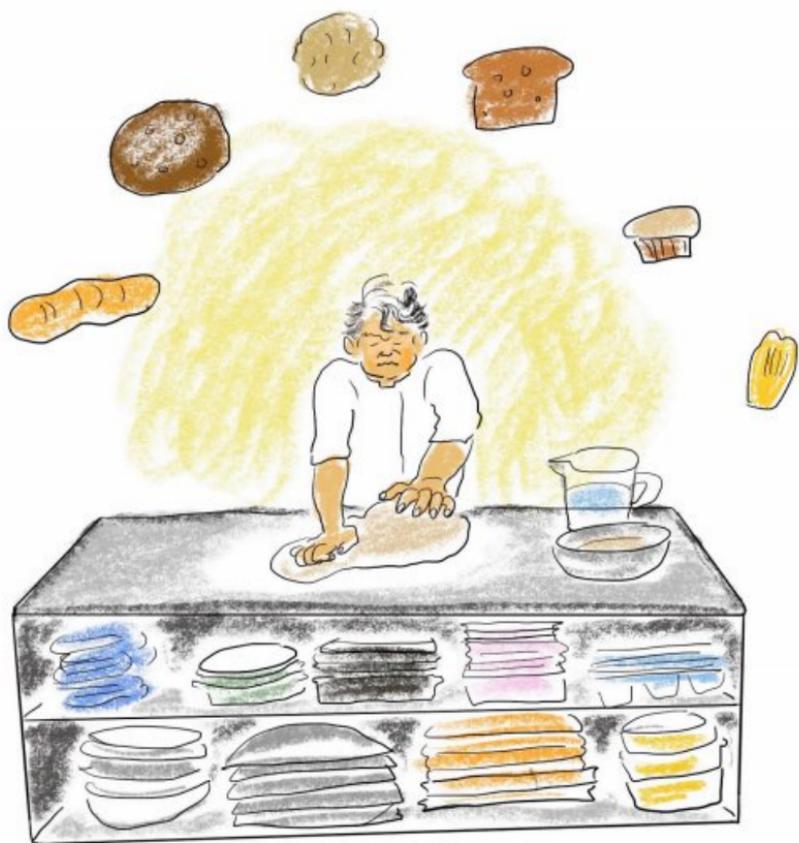
빵재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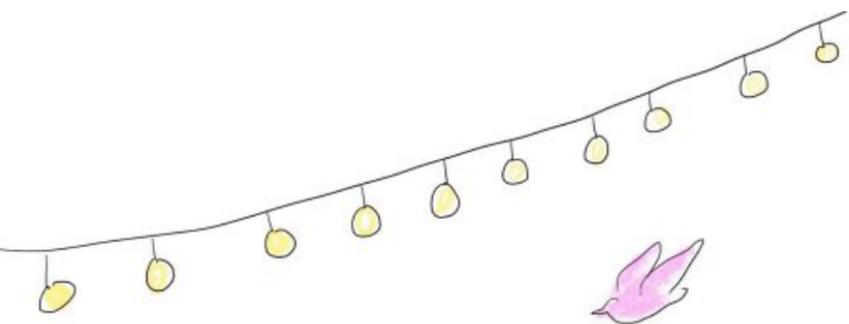


달콤한 빵 한 입 베어 물면 양 볼 가득 만족감이 차오른다.
어디 그럼,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세상을 만들어볼까?
한 건물에 베이킹 수업, 체험 공방, 카페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황홀할까?

'김해' 하면 '빵!'을 외칠 수 있다면.







회현동에 가면 재미난 사람들이 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골목에서 머리 맞대어 작당한 일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하하 호호 웃음이 번지는 회현동,
이웃의 얼굴이 반가운 골목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하다. 잘 놀고 잘 쉬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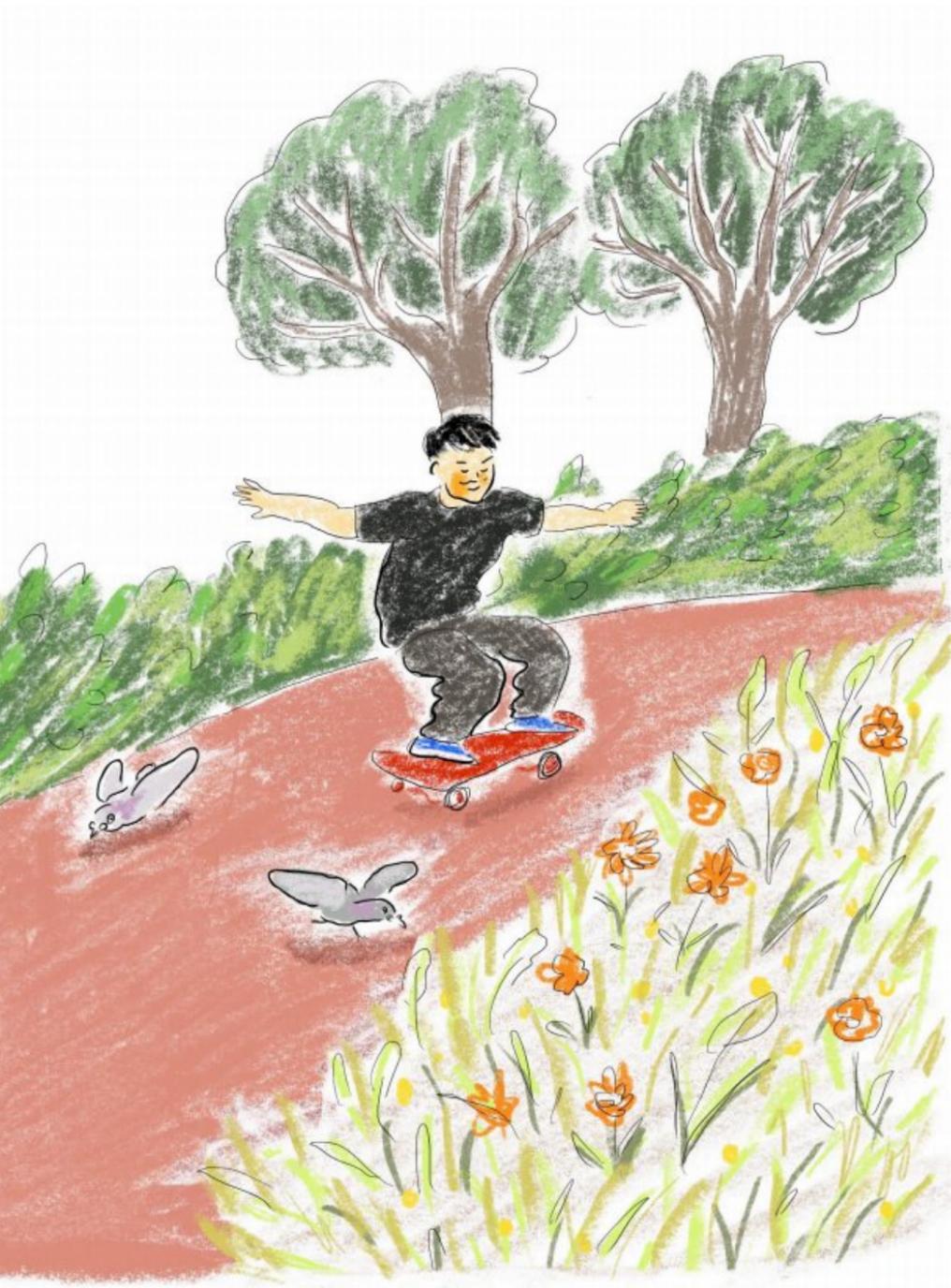


열세 살 겨울, 처음 스케이트보드를 탔다.
두 발로 서는 게 어려워 앉아서 탔다.
'언제쯤 두 발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하루, 이틀, 삼일. 몇 달이 지나
드디어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나를 스치는 풍경들,
속도를 내는 짜릿함.

이 재미를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서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김해가 된다면!







불 꺼진 캄캄한 박물관을 상상해봐.
여기선 손으로 유물을 만지고
마음대로 실컷 떠들어도 괜찮아.
겉먹을 필요 없어.
차분한 목소리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시각장애인 역사해설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또 다른 감각이 너를 깨울 거야.

‘암전박물관’에 온 걸 환영해.







친구야!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노는 거야.

숙제도, 스마트폰도 모두 던져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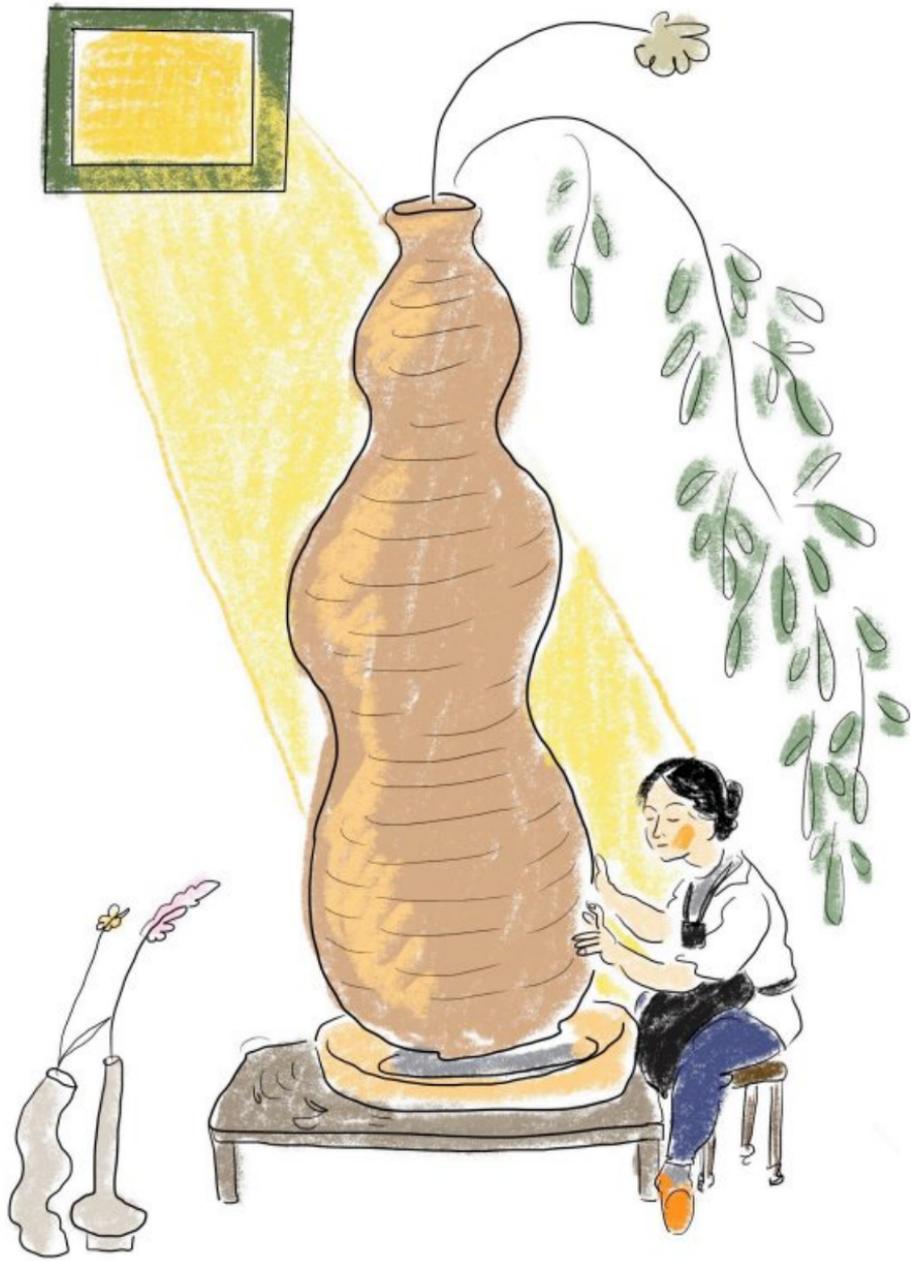
마음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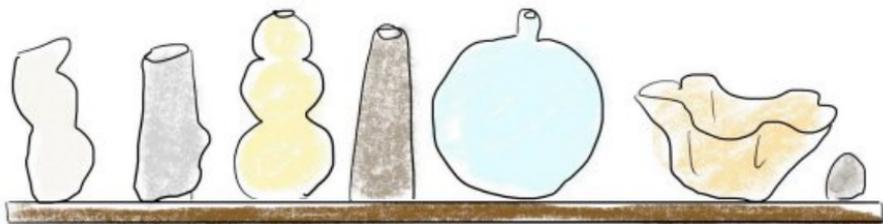
노래 부르고 손뼉 치자.

아이도, 어른도 함께 손을 잡고 뛰어놀자.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도자기를 빚는 시간.
자유롭게 흙을 만지는 기분을 나누고 싶어.
더 많은 사람과,
더 넓은 세계에서.



똑똑똑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우리 이웃의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눠

대동면 33개의 마을에서 흐르는 삶의 이야기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지.

문화고 예술이고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이
살아있는 예술의 장이야.







누가
나의 편?
언제나
니편!

스산한 햇빛 하늘처럼 우울하고,
곧 꺼질 촛불처럼 마음이 불안한 날이 있어.

짙은 그림자가 마음에 드리운 날.

〈마뚬〉의 문을 두드려.

어떤 고민도 다 들어줄
귀가 아주 큰 사람이 반겨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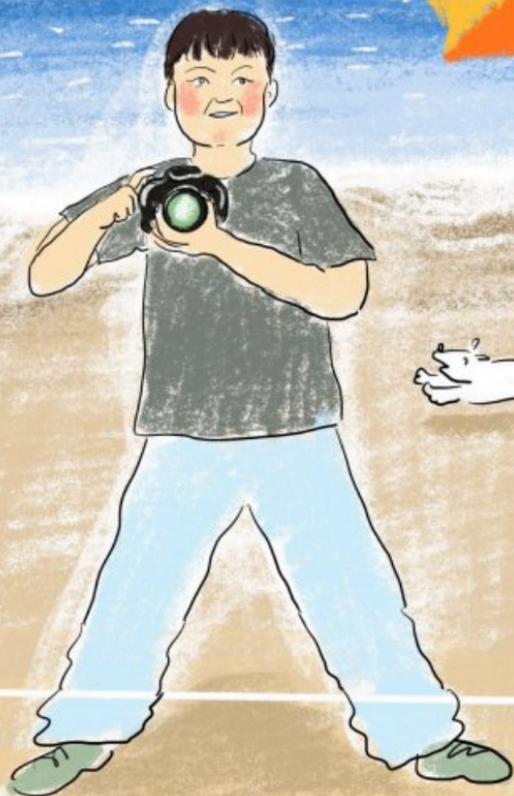
학이 날아든다.
세상의 아픈 곳마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너울너울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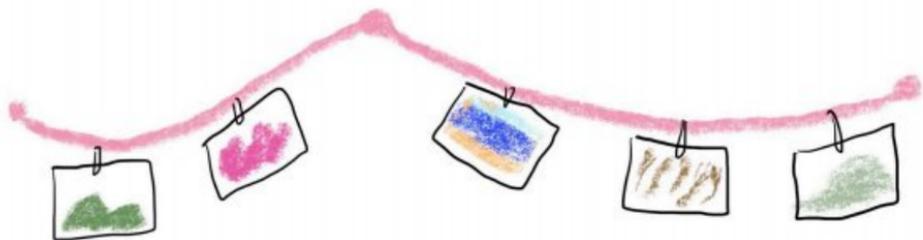






더사진 @thesaz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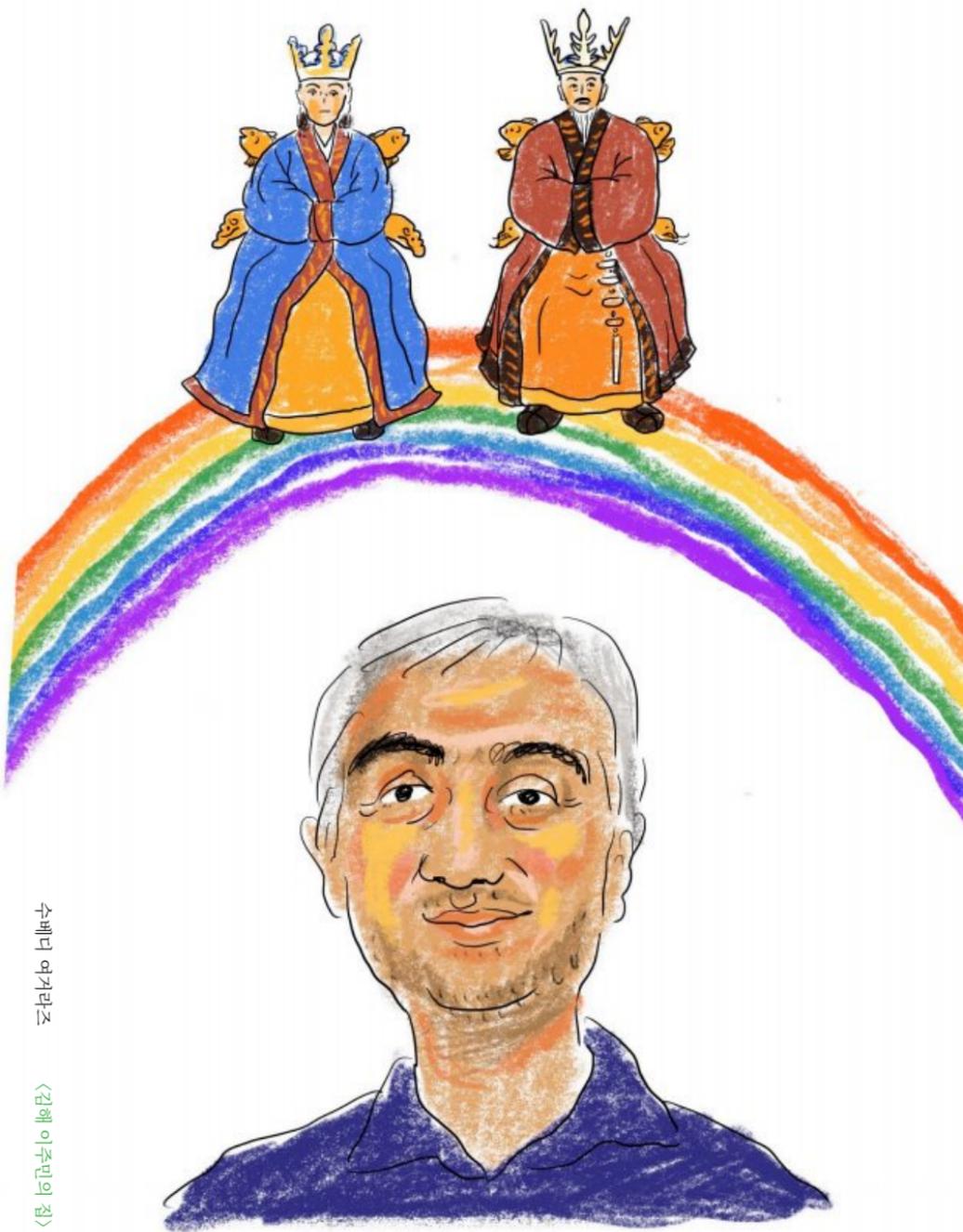




바람처럼 훔날려 사라질 이야기를
네모난 프레임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

'찰칵'

오늘의 풍경이 쌓여 김해의 역사가 된다.



수베디 여가타운

<김혜 이주민의 집> 대표

옛날 아주 먼 옛날

김수로왕은 인도에서 온 허황옥 왕후와 만났어.

서로가 쓰는 말도 글도 달랐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손을 맞잡았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면
김해의 다양성은 무지개처럼 빛날 거야.



'샤골'이란 별명은 할머니가 지어주셨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야.

푸르른 바다를 상상해봐.
커다란 덩치의 고래도 있고,
유연하게 헤엄치는 해파리도 있고,
딱딱한 등을 가진 게도 있지.

'이주민'이라는 선을 지우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
김해라는 바다에서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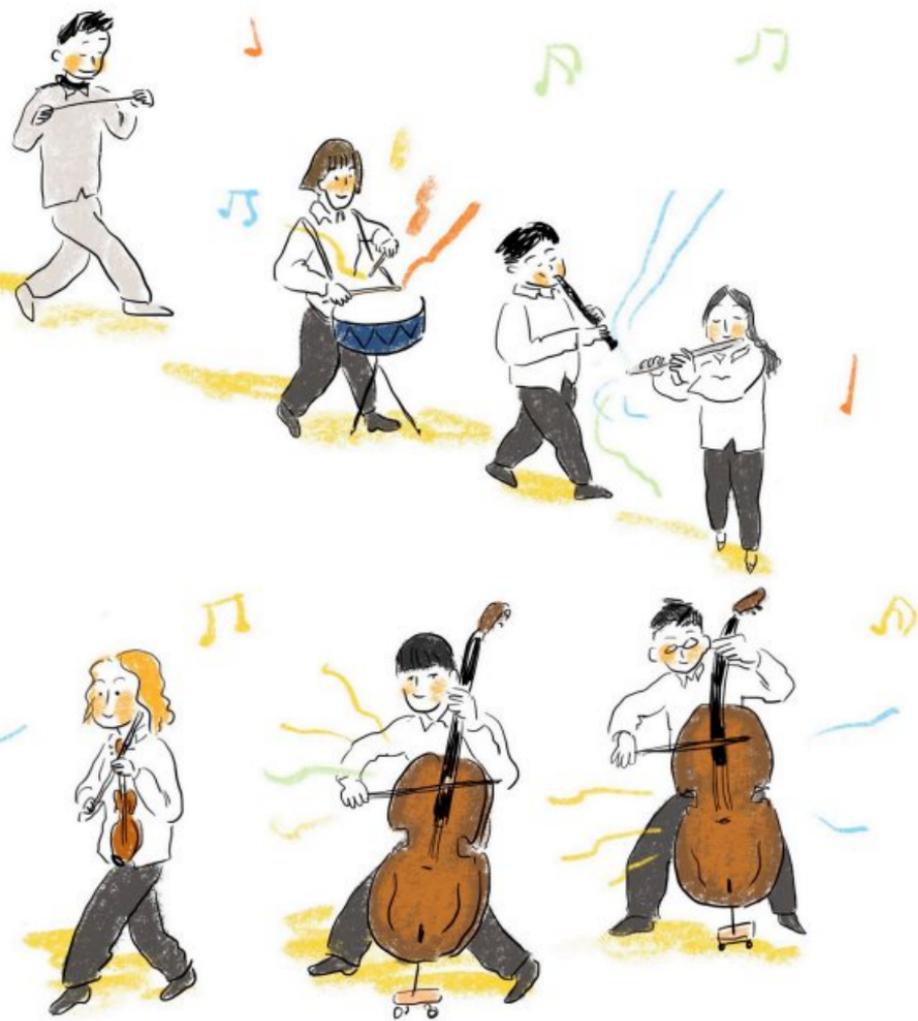




더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꿈
젊은 연주자들이 설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꿈
경연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꿈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의
뚜벅뚜벅 힘찬 발자국.







전



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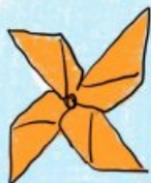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

잔인하게 살처분되는 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예술'이라는 입을 통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





신준경

평범 작은 도서관 관장

자랑 하나 할게.
우리 동네에는 말이야.

품속에 작은 아이를 안고도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고,
친구와 마음껏 수다를 떨어도
눈치 하나도 보이지 않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

책을 읽다 꾸벅꾸벅 졸다 깨도
하나도 멧쩍지 않다니까.

부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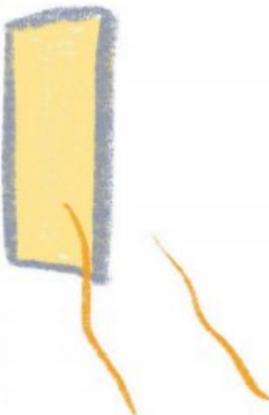
나는 필리핀에서 왔어.
노래를 좋아해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
무대에 설 때마다 '김해 새댁'이라고 소개해.
논밭 풍경이 보이고,
차도 덜 막히는 김해가 좋거든.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좋은 가수가 되고 싶어.









가야금 소리가 귤가에 들려온다.
아이도, 어른도, 지나가던 고양이도
가만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인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곳.
누구나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곳.
'예뵘'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있다.



일상 속에 예술 한 스푼을 섞어봐.

매일 마주치던 이웃이 새로워 보이고,
함께 부르는 노래에 눈물이 날지도 몰라.

한바탕 신나게 놀고
개운하게 땀을 닦고 나면
우리 동네가 다르게 느껴질거야.







세상은 반짝 빛나도
너는 그렇지 않다고 울지마.
마음속에 가득한 말을
모두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

들려오는 음악에 눈을 감아봐.
익숙한 노래는 따라 불러도 좋아.
언젠가 끝나는 음악처럼,
너의 슬픔도 끝이 날거야.





아주 부드러운 마법이 시작된다.

무대와 객석의 선이 사라지고,
이곳과 저곳의 벽이 무너진다.

하우스 콘서트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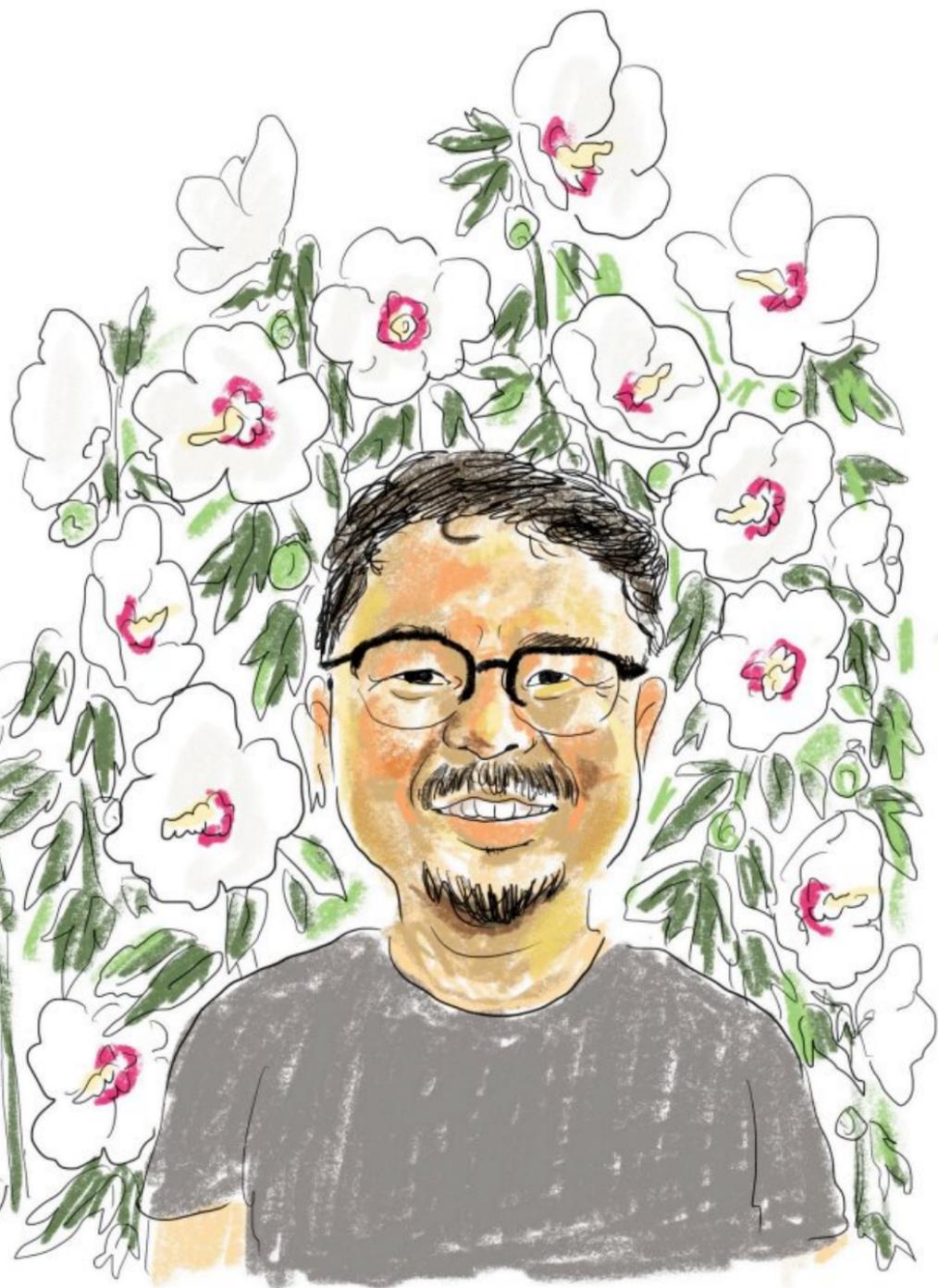


♪♪♪♪♪



대동 생태 체육 공원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분홍 꽃, 흰 꽃, 자주 꽃
바람에 나부끼며
사람들을 반깁니다.







새로운 물을 붓고,
더 넓은 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든 예술이라는 강 속에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도 있고,
느리게 기어가는 다슬기도 있을 거야.
축제를 열면 저마다의 노래를 부를 거야.





어릴 적, 방학이면 할머니 댁에 갔다.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찜병찜병 뛰어놀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고 신나게 놀았다.
깨끗한 자연은 그대로 천국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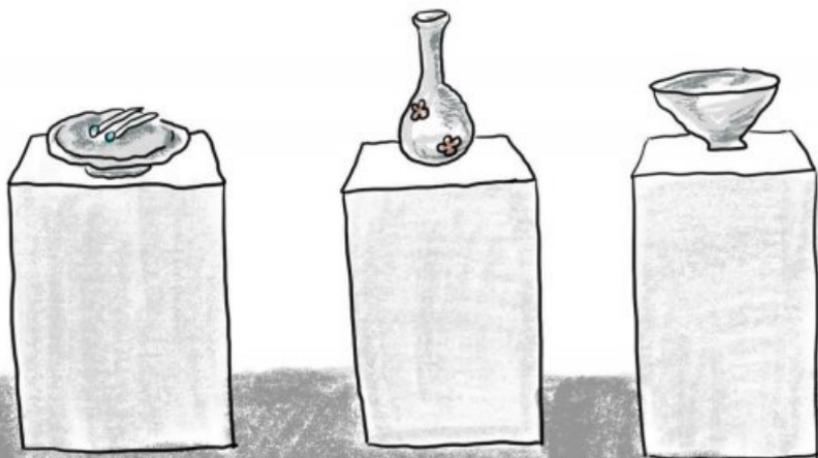
김해의 자연 공간을 지키는 일은,
천국을 남겨두는 일이다.



가야 시대 유물인 파형 동기를 보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만들었어.

조상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은
영원히 멈춘 시간이 아니야.

예술가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영감이야.







최도영

문화기획자, 김혜 오광대 전수관 사무국장



40년 전, 김해는 문화불모지라 불렸다.
감감한 세상에 촛불 하나 든다는 마음으로
가야금 대회를 만들고, 가락문화제 축제를 만들었다.

누군가 걸어간 길이
다음 사람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촛불을 든다.

p.s. 이 속에 작은 씨앗을 숨겨뒀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땅이 마르지 않게
물을 준다면
싹을 틔울 수 있을 지도 몰라.

이번에는 어떤 꽃을 피울까?